

글. 장성익(작가)

- 서울대 인문대학 종교학과 졸업
- 생태 인문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편집주간 역임
- 현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풀빛출판사 기획위원



기후위기의 비상벨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던 질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대멸종'이라는 말이 오르내릴 정도로 인류의 미래는 거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기후위기는 종말의 징조일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을까?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고양소식」 6월호는 환경 관련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100년 만의 최대 폭우, 역사상 최악의 초대형 산불... 언젠가부터 심심찮게 접하게 된 말들이다. 오늘날 지구촌 최대의 환경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우려나 경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기후위기의 심각함과 절박함에 비춰볼 때 기이할 정도로 무사태평인 사람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다. 지구가 뜨거워진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서서히 진행되기에 내가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대로 괜찮을까?

프랑스에서 지난 2021년 7월 통과된 기후 관련 법에서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 그러니까 서울-부산 간보다 짧은 거리는 비행기 운항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비행기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엄청나서다. 만약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다면 국내에서는 거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또, 에너지 낭비가 심한 집의 경우 2028년부터는 임대를 금지한다.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가량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탓이다. 유럽연합(EU)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라 불리기도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된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 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분야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위에 열거한 예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이런 일을 하려면 큰 비용과 수고가 든다. 오랫동안 길어져온 기존의 산업과 에너지 구조, 생산과 소비 방식, 사람들의 생활습관 등을 바꾸는 일이 쉬울 리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 힘든 길을 가려는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살기 위해서다. 우리의 생존과 삶을 온전히 이어가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는 1.5°C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더 늦기 전에 1.5°C 이내로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미 1.09°C 올랐다. 1.5°C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이 아닌 '희망'을 위하여

이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인 기후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될 것이다. 기후 난민 급증, 식량 및 물 부족 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더위 질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바닷물 수위 상승, 해류와 바닷물 성분 변화, 수많은 생물의 멸종 등의 사태가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식량과 물 부족, 기후 난민 문제 등은 여러 나라가 얽힐 수밖에 없어서 국제적 분쟁이나 전쟁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바야흐로 기후위기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인 것이다. 기후위기는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별세상 이야기도 아니다. 재난이 일상사가 되면 그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위기가 '나의 문제'인 까닭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은 괜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삶을 향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회복과 재건의 길로 나아갈 돌파구를 뚫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전대미문의 기후 재앙을 종말이 아닌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